

안전의식은 윗사람부터



민철기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으뜸은 작업자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어느 분야, 어느 계통이고 간에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진리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이다. 사고예방 즉 안전관리도 이러한 테두리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조직을 맡고 있는 장이 안전의식이 투철하고 이에 잘 무장이 되어있으면 그 밑의 종업원들도 자연 이를 따라서 훈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결국에는 사고 건수가 많이 줄어든다.

한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똥을 갓 지난 아기에게 이 사고가 가장 무섭다. 이때의 아기의 습성은 주위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만져보고 입에

넣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신경을 써서 위험한 대상물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밥상에 덩벼서 뜨거운 국이나 물에 손을 넣어 심한 화상을 당하거나 문턱(재래식의 턱이 높은 구조)에 서서 엄마를 불러 대다가 밑으로 곤두박질해서 다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이러한 일은 항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아이들(애매한 피해자, 희생자)은 울음을 터뜨리고 당황한 엄마들은 어쩔 줄을 몰라하고, 심지어는 사고의 결과를 아이들 탓으로 돌리고 힐책하곤 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때의 책임을 전적으로 어머니들에게 있다.

사고예방은 어떤 특수한 훈련이나 지식이 필요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 안전의식이 남보다 뛰어나면 자연스럽게 사

고를 사전에 봉쇄하는 슬기도 갖게 된다. 아주 비좁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안전의식이 뚜렷한 엄마는 애들을 곱게 키워낸다.

이와같이 안전관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그 주위환경에 따라 가장 최선의 예방책을 찾아내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하고 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무엇이 없어서 혹은 시설이 안되어서 하고 불평하는 것을 흔히 듣게 된다. 안전시설이 훌륭하고 작업장소가 넓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으나 사고는 이러한 물리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업자가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내 몸은 내가 필히 지켜야겠다는 정신, 즉 안전의식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실제적으로 통계숫자를 들더라도 사고율 면에서 안전의식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말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계기로 사고의 양상도 크게 달라졌다. 가내 수공업 생산방식이 일약 공장의 대량생산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생산장비도 엄청나게 덩치가 커져 위험스러운 흉물로 변화하게 되었다.

기계라고 힘만 커지고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는 전혀 관심 밖의 일로 여겨졌다. 이러한 속에서 일하다 보니 기계의 피해에 휘말리거나 회전부위에

접촉되어 순식간에 사망 내지는 불구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보상은 커녕 모든 책임을 작업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죄목은 단순히 작업자의 부주의 하나로 귀결되었다. 이 작업자의 부주의는 매우 편리한 사유로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가 많이 변했다. 그 시절에 비해서 작업자 사고처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기업인들의 윤리나 도덕도 달라져서 당사자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일정한 보상을 해주게끔 되었다. 초창기에 비하면 지극히 잘된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사화합을 지향하는 오늘날, 사고발생은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공동의 적이다. 사고발생에 따른 비용을 근로자 복지를 위해 활용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더이상 작업자의 「주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비록 부주의 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도 이를 막게하는 기능(FAIL SAFE)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잡다한 물리적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안전의식이다. 위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제일이고 불가피할 때에는 만반의 준비(정신상태, 보호구)를 하고 덤벼야 한다. 이러한 안전의식은 윗사람부터 짚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 둔다. 

<필자=안전 전문가>